

#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과 정책과제

張英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서론

21세기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및 구조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수준의 지속으로 계속 증가하여 오던 인구가 2028년 이후에는 감소하게 되고, 인구의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게 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이다.

1962년부터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여성 1명당 낳는 아이수(합계출산율)는 1960년 6.0명에서 1984년에 인구대치수준인 2.1명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1987년에는 이보다 낮은 1.6명까지 저하되었다. 최근 1993년에는 이보다 약간 증가한 1.75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구대치수준 이하의 낮은 출산수준이 지속되고 있음은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된 장기인구추계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신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1995년 4509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5007만 명에 이르고 2028년에는 5278만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종래의 인구추계와 비교해 볼 때, 인구증가가 정지(0%)되는 시기는 2021년에서 7년이 늦어지고, 최대 인구규모는 219만명이 많아진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성장 정지시기의 지연은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를 지연시키고,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출산수준의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율의 저하는 인구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비율의 점차적인 감소와 함께 노년인구비율의 증가로 2000년경에는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노년인구비율의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화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력문제, 노인부양문제, 주택문제 그리고 저출산과 선택적인 출산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성비불균형 문제,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 등이 우리가 당면하게 될 과제인 것이다.

## 2. 신인구추계에 의한 인구변동의 양상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의 특징은 저출산 수준의 지속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율 둔화 그리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독신가구의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저연령층의 미혼 비율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학령인구의 감소,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가. 인구규모의 변동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인구추계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합계출산율은 1995년 1.74명에서 2000년에는 약간 저하한 1.71명 수준까지 저하하나 그 이후는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1.74명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1.8명 수준에 이른 후 그 이후는 동일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인구이동은 1990~1995년 평균수준인 3만명 정도가 매년 해외로 순이동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평균수명은 1995년 73.5세(남자 69.6세, 여자 77.4세)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77.0세(남자 73.3세, 여자 80.7세), 2030년에는 79.0세(남자 75.4세, 여자

표 1. 주요인구지표

(단위: 천명, %, 세)

		1995	2000	2005	2010	2020	2030
인구규모	총인구	45,093	47,275	49,123	50,618	52,358	52,744
	남자	22,705	23,831	24,778	25,536	26,384	26,492
	여자	22,388	23,443	24,345	25,081	25,974	26,252
인구구조	0~14	23.4	21.7	21.2	19.9	17.2	16.0
	15~64	70.7	71.2	70.1	70.2	69.6	64.7
	65+	5.9	7.1	8.7	9.9	13.2	19.3
부 양 비	총부양비	41.3	40.4	42.6	42.6	43.6	54.5
	유소년부양비	33.0	30.4	30.3	28.4	24.7	24.7
	노년부양비	8.3	10.0	12.3	14.2	18.9	29.8
평균수명	전체	73.5	74.9	76.1	77.0	78.1	79.0
	남자	69.6	71.0	72.3	73.3	74.5	75.4
	여자	77.4	78.6	79.7	80.7	81.7	82.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2.

82.5세)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추계된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1995년 4509만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5062만명, 그리고 2030년에는 527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성장률은 1995~200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9% 수준이었으나 2005~201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6%, 그리고 2020~203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0.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나. 인구구조의 변동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출산율이나 사망률 그리고 인구이동에 의한 영향 이외에 8.15해방전후 혼란기의 출생감소, 6.25전쟁에 의한 출생감소,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의 베이붐 등은 점차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출생아수의 증가나 감소요인으로 작용,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 노년인구비율의 증가

인구구조는 인구대치 수준 이하의 저출산수준의 지속으로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인구의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즉,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1995년 23.4%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19.9%로 그리고 2030년에는 16.0%로 크게 저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연령층에 대한 부양비는 1995년 33.0에서 2010년에는 28.4로 낮아지고, 2030년

우리나라 노년인구비율은 저출산수준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1995년 5.9%에서 2000년에는 7.1%, 2030년에는 19.3%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에는 24.7로 계속 낮아질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1995년 5.9%에서 2000년에는 7.1%로 증가하여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며, 2020년에는 13.2%로 그리고 2030년에는 19.3%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년부양비는 1995년 8.3에서 2000년에는 10.0, 그리고 2020년에는 18.9, 2030년에는 29.8로 증가하여 노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 2)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율 둔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995년 3190만명에서 2018년에는 3655만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생산연령인구의 비율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1995년 70.7%에서 2000년에는 71.2%로 증가하나, 2010년에는 70.2%, 2030년에는 64.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로 저연령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인구비율이 증가하며,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게 됨에 따라 2000~2010년대 중반에는 노동력 공급의 부족이 예상된다.

### 3) 학령인구의 감소

학령인구(6~21세)는 출산수준 저하의 영향으로 1980년경부터 감소하여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소추세는 저출산수준의 지속에 따라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급별 학령인구는 인구구조에 따라 부분적으로 증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는 1970년경 이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980년 이후부터 그리고 대학교는 1990년경 이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교 학령인구는 1995년 323만명에서 2030년에는 243만명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4)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출산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임여성(15~49세) 인구규모는 1995년에는 1286만명에서 2000년에는 1340만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10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생산능력이 높은 연령층인 20~34세 연령층은 1960년 294만명에서 1995

년에는 631만명으로 최고수준에 이르렀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46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가임여성인구의 감소는 출생아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 5) 결혼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

소자녀를 원하면서도 원하는 성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태아성감별이 용이해짐에 따라 태아의 성선택적인 출산이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출생시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1970년 109.5명에서 1990년에는 116.6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1995년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113.4명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은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결혼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이어져 결혼적령인구의 성비는 1995년에는 100.0명(여성 100명당 남자의 수)으로 남자와 여자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2010년에는 123.4명으로 증가하여 결혼적령 인구의 성비불균형이 가장 심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주 결혼연령층 인구의 인구추이

(단위: 천명, 여자 100명당)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남자	2,093	2,252	2,173	2,273	1,963	1,989	1,778
여자	2,089	2,054	2,172	1,977	1,915	1,612	1,630
성비	100.2	109.6	100.0	115.0	102.5	123.4	109.1

주: 1985년은 남자 25~29세, 여자 20~24세를 주결혼연령층으로, 1990년이후는 남자 26~30세, 여자 23~27세를 주 결혼연령층으로 본 수치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2.

## 6) 미혼율의 증가

최근 인구변동의 특징중의 하나는 저 연령층의 미혼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이 1985년 18.4%에서 1990년에는 22.1%로 3.7%포인트가 증가하였으나 1995년에는 29.0%로 6.9%포인트가 증가하여 1990년에서 1995년 기간중에 미혼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경제활동의 증가나 학력수준의 향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증가추세가 높은 연령층으로 이어질 경우 출산율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7) 독신가구의 증가

독신가구(1인가구)의 비율은 크게 높아져 1980년 4.8%에서 1990년에는 9.0%로 그리고 1995년에는 12.7%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독신가구의 증가원인은 결혼 연령의 상승과 직장생활을 위한 젊은층의 도시에서의 독신가구 증가, 그리고 농촌에서 젊은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른 노인독신가구의 증가 현상 때문이다.

## 3. 인구변동에 따른 정책과제

### 가. 여성 및 노인인력의 활용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율 둔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국면에 대처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우리나라 결혼적령인구의 성비는 1995년 100.0명에서, 2010년에는 123.4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신부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노령인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꾀함으로써 노동력 부족과 복지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취업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 고령자를 위한 정년연장과 재취업, 고령자 의무고용, 영농 재교육, 고령자 공동작업장 설치, 인재은행을 이용한 고령 고급인력의 활용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최근에 이룰수록 사망수준이 개선되고 출생자녀수가 감소됨에 따라 자녀결혼 완료 이후 부부만이 생활하는 기간과 남편 사망후 미망인으로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 기간은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출생성비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통계청에서 신인구추계시 적용한 출생시 성비는 1995년 113.4명에서 점차 감소

하여 2015년에는 정상출생성비인 107.0명에 이른 후 그 이후는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상출생성비로 낮아지기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출생성비 불균형의 완화를 위하여는 성감별 금지의 지속적인 처벌 강화와 국민의 남아선호관 불식을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그리고 각종 남아선호를 조장하는 사회제도 및 규범의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교육의 강화 및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자율적 자체운동전개

높은 피임실천율에도 불구하고 성행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및 정상출생성비의 회복을 위해 피임실천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터울조절 기간중의 정확한 피임실천 유도, 가족계획 및 성윤리에 대한 학교교육 및 산업장교육의 강화, 의료인의 자율적인 자체운동전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가구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의 공급

가구형태의 변화에 따라 주택형태도 독신가구에 적합한 원룸주택, 독신노인 및 노인부부에 적합한 주택 및 임대주택의 증가 등 가구형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 및 확대가 요구된다.

4. 향후의 정책방향

정부에서는 1996년 6월 안정된 인구구조를 위해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으로 유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으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인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 전환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사회지원시책의 전환시 일부에서 우려하였던 출산율의 증가 조짐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은 신인구정책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1.7~1.8명 수준으로 가정하여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출산력 수준이 유지되기 위하여는 출산력 변동에 관한 시계열적인 관찰과 더불어 가족계획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높은 피임실천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에 이르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을 위하여 모자보건을 포함한 출산건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성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환경을 개선하며, 학교 및 산업체를 통한 성교육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독신가구 및 노령인구의 증가, 여

---

성경제활동의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 등에 대비한 인구정책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과 통합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중소기업에서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 특히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은 점차 심화되고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인권과 처우 면에서 국제적인 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장단기 인력수급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출생시 성비불균형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의식변화가 없이는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감별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강화와 국민의 남아선호 불식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남아선호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제도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인구정책은 인구의 양적 조절 위주에서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구정책이 인구의 양적 조절 위주에서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이들 단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족계획은 더 이상 인구억제 수단인 아닌 가족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수단임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